

지역 소식통

정읍시농기센터, 주산지 일관 기계화 본격 추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장기 임대)을 본격 추진한다.

발자불린 콩과 인파, 고추, 마늘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인삼 등 주산지에 집단 생산농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에 20%를 내구연한 동안 나누어 지불한다.

시는 2018~2020년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농협과 연구회, 직박반 등 8개소에 27종 50대의 파종 및 수확 농기계를 장기 임대했다.

올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4개소에 7종 18대의 농기계 장기 임대대를 추진해 어려운 발자불린에 대해 기계화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기 임대는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주변 농가의 농작업 대행까지도 결합할 수 있어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정읍시,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정읍시가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현장평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평가회는 사업별 주요 시설과 포장에서 현장평가로 진행했으며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는 등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계화 재배 기술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경영분석, 신품종의 지역 재배 특성, 병해충 감수성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에 총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해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상왕등도' 에너지 사업 확정

부안군 서해 맨 끝 섬,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공모 사업지 선정...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 기대

부안군은 '서해 맨 끝 섬' 상왕등도가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공모 사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가 시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시설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은 전국의 자가발전도서를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기존 디젤발전기의 발전 방식 전환을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부안군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왕등도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가 예산 약 33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예산 및 재생에너지 발전원 및 사업규모는 올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에서 시행 예정인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발전설비가 들어설 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최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성 및 예산확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매·설치·시운전을 주관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9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슬로건 · 공식 포스터 공개

'고창, 농촌영화를 품다' 슬로건 확정... 내달 5일 개막 · 드라이브 시네마 · 장 · 단편 영화제작 공모

국내에서 단 하나뿐인 농생명 특화영화제인 '고창농촌영화제'가 올해 제4회 영화제의 슬로건과 공식 포스터, 트레일러 등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영화제 알리기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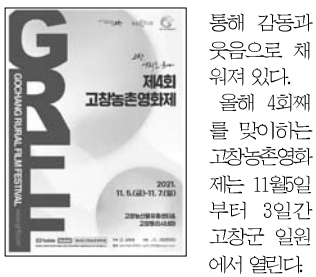
지난 15일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5일에 개막하는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의 슬로건으로 '고창, 농촌영화를 품다'로 정해졌다. 공식 포스터는 고창군 특산물인 청보리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색을 통해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국민들을 영화를 통해 관객을 끌어 위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트레일러는 영화 '뽕피리'로 유수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던 임익준 감독이 연출을 맡아 농촌 속 영화인들을 통해 감독과 웃음으로 채워져 있다. 올해 4회제를 맞이하는 고창농촌영화제는 11월5일부터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정읍시의회 임사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사회를 지난 12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은 5분자유발언 '국가 변화 추세에 맞춘 공모사업 응모 필요'를 통해 국가의 변화 추세와 정읍의 특성에 맞춘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의 응모를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고, 기시제 의원은 '정 있는 사람은 정읍사람입니다'를 통해 2023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고창시립기부제에 대비해 고창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기부금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일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 시네마, 장·단편 영화 제작 공모와 시장화 상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도하는 한국전쟁전쟁은 농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작품들로 눈길을 끈다.

의원은 '정읍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영1차 작은말고개 구간 타널 신축 계획 제언'을 통해, 수성동 부영1차 아파트 뒤쪽 도로와 장평동 영창 아파트 옆 작은말고개를 연결하는 길이 약 800미터의 구간의 타널을 건설해 정읍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아남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지치법규 일제장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2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회의 소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조례안'은 원안가결, 김승범 의원의 1인이 발의한 '정읍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

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이어서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대파데 등의 재해복구를 증폭 지원하고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보상기준을 재해가 없는 해의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현실화할 것의 내용으로, 이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이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원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원 증가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88회 임사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올해의 지방자치 분야 영예, 선진 자치행정선도 우수평가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제7회 2021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자치 분야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난해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정읍시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2020년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정읍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이라는 도시브랜딩 아래 용산호 주변 활성화 사업과 내장산 자연 휴양림 조성, 내장산 문화광장 개발 등을 추진, 세계적 체류할 수 있는 관광도시로의 초석을 세운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11만 시민과 1천400여 명의 공직자가 많은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자주재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행 행사는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출입기자클럽과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가 주관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은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모범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의정,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기업발전 등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2018년 7월 민선 7기로 취임한 유진섭 시장은 미래 정읍의 희망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 자치행정을 선도하며 정읍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중앙부처 · 국회방문 등 정치권에 적극적 협조건의

고창군이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정운천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최다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지난 12일 세종시 중앙부처 방문에 이은 광폭행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노을·생태 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홍려·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창 성산 생태축 복원사업 ▲명사십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등 중점 확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고창군 서해안권 해양생태벨트의 중요 거점인 될 심원면 염전부지

내 연안·내륙식물원 철새 체류관 등을 설치하는 ▲노을·생태 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더해 이번 '국도·국지도 57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고창~부안(국도7호선) 노을대교의 경관과의 조화 디자인, 비용절감,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턱기 방식의 사업추진과 국비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시작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11월 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꾸려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